

희 불펜진 때문에... 비

양현종엔 '승리 도우미'
13이닝 완벽투 3승 지켜



윤석민엔 내부의 적(?)
15이닝 5실점 3승 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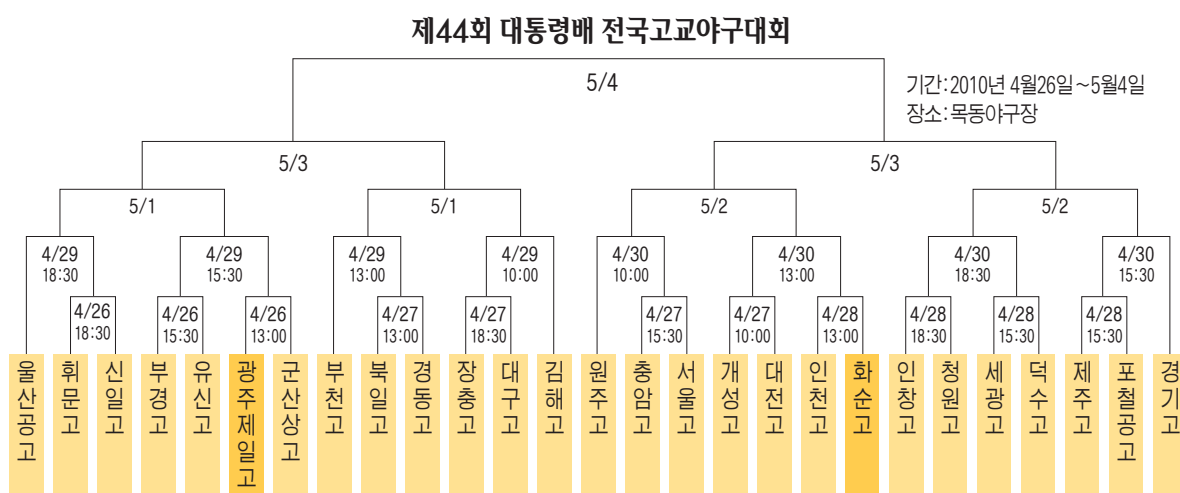
널뛰기를 하는 '불펜진'의 행보에 KIA 마운드의 두 기둥 윤석민과 양현종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우완 특급 윤석민과 좌완 에이스 양현종은 올 시즌 나란히 4경기에 등판했다.
 팀 내 가장 많은 이닝(25와 3분의 2이닝)을 소화한 윤석민은 3.86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23개의 탈삼진을 뽑아 냈지만 승수는 '1'에 불과하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2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승투수가 된 뒤 아직 승리소식이 없다.
 윤석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닝(22와 3분의 1이닝)을 책임진 양현종은 4.84의 방어율로 3승1패를 기록하고 있다. 탈삼진 갯수는 윤석민보다 1개 더 많았지만 17개의 사사구를 남발했다. 윤석민의 7개보다 많은 수치다.
 객관적인 기록으로는 윤석민이 좀 더 세밀한 투구를

했지만 결과는 3승을 행진 양현종의 승리다. 두 투수의 표정을 달라지게 한 주범은 불펜진들이다.
 21일 롯데를 상대로 시즌 네 번째 등판에 나선 윤석민은 1회 투 아웃 이후 볼넷 두 개와 박종윤의 2루타를 포함 3개의 안타를 허용하면서 3실점 했다. 롯데의 일방적인 경기가 예상됐지만 타선이 6회까지 5점을 뽑아주며 5-4로 KIA의 역전극이 벌어졌다. 1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던 윤석민은 6회까지 버티며 승투수 요건을 갖춘 채 손영민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하지만 4타자를 상대한 손영민이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는데 그치며 5-5 동점을 허용했다. 2승을 향한 윤석민의 세 번째 도전이 무위에 그쳤다. 7회까지 무실점으로 두산 타선을 막았던 15일에는 1사 1·2루 상황에서 구원등판한 '절친' 과격철이 흔들리면서 승리를 눈앞에서 날렸다.
 윤석민이 등판한 4경기에서 불펜진은 15이닝 동안 5실점을 했다. 결정적 순간의 실점으로 체감되는 부진정도는 더 컸다. 반면 양현종에게 불펜진은 '승리도우미'다.
 첫 등판이었던 3월30일 4회 6실점으로 무너졌던 양현종은 4월6일 SK를 상대로 3-1,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2점의 승부를 마무리한 불펜은 11일 삼성전에서도 1점의 리드를 지켜줬

다. 양현종이 출격한 4경기에서 불펜진은 13과 3분의 2이닝을 완벽하게 막으며 '0'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
 승승장구중인 양현종과 발목 잡힌 윤석민. 표정은 다르지만 많은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두 투수는 4경기를 통해 풀어야 할 숙제를 안았다.
 우승팀 주역 선수로 상대팀들의 견제와 연구는 더 심화됐다. 이를 넘어서기 위한 집중력과 끈끈한 투구가 필요하다. 17개의 사사구 갯수가 보여주듯이 양현종은 컨트롤 잡기가 우선이다. 전반적으로 제구가 높게 되면 어려운 승부를 벌여왔다.
 팬들의 높은 기대속에 '속알이'를 하고 있는 윤석민에게는 여유가 필요하다. 다양한 구질을 앞세워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마운드에 서지만 결과가 좋지않은 양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2일 국내 최대의 국제 도로 사이클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 2010'에 참가한 각국 선수들이 제주시 구좌읍 일주도로를 힘차게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안타 재개

타율 0.313... 팀은 완봉패

하루 숨을 고른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방망이가 안타 재조를 재개했다.
 추신수는 22일(한국시각)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와 방문경기에서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타율은 0.318에서 0.313(4타수 15안타)으로 약간 떨어졌다.

전날 3연타석 삼진에 4타수 무안타로 물러났던 추신수는 1회 2사 주자 없이 들어선 첫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냈다.
 클리블랜드는 8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킬리아노에게 막혀 0-6으로 패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답합 파문

오늘 조사결과 발표

지난해 쇼트트랙 대표 선수 선발전 '짬짜미 파문'과 2010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불거진 '이정수 외압'의 진상 조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 구성된 쇼트트랙 진상조사위원회가 9일 동안 활동을 끝내고 23일 오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4일 처음 출발한 공동조사위원회는 애초 위원장을 맡았던 김철수 대구빙상연맹 회장이 중립성을 이유로 자진 사퇴하면서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지만 오영중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코치 외압'을 주장한 이정수(단국대) 측인 권금중 한국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위는 이번 파문의 당사자인 이정수와 전재목 대표팀 코치를 대질 조사하고, 지난 2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김성일(단국대)과 박윤기(연세대)를 비롯해 김기훈 대표팀 감독 등을 소환했다.

또 대표선발전 '짬짜미 의혹'을 풀려고 두 차례 정밀 비디오 분석을 펼쳤던 조사위는 22일 성시백(용인시청)과 유태욱 빙상연맹 쇼트트랙 부회장 및 전명규 빙상연맹 기획 부회장을 불러 면담을 하는 것으로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대통령배 고교야구 26일 개막

27개팀 참가... 광주일고 통산 최다 우승 도전

올해 두 번째 고교야구 전국대회인 제44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26일부터 5월4일까지 9일간 목동구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우승팀 덕수고를 필두로 지난날 첫 전국대회인 황금사자대회에서 정상을 밟은 광주일고 등 지역

예선을 거친 27개 팀이 참가해 열전을 벌인다.
 26일 오후 1시에 열릴 개막전에서는 광주일고와 군산상고가 맞붙는다. 광주일고는 이 대회에서 역대 5번, 군산상고는 3번 우승한 명문이다.
 덕수고가 대회 3년 연속 우승에 도

전하고 특급 왼손 투수 유창식을 앞세운 광주일고는 2007년 이후 우승컵을 되찾으면 경북고, 부산고와 함께 대회 통산 최다(6회) 우승팀에 오른다.
 한편 이 기간 목동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는 사직-잠실-문학구장에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투르 드 코리아' 거친 바다 건너 전남에

<국제 도로 사이클대회>

오늘 강진 출발... 보성~여수 거쳐 11일 열전

국내 최대의 국제도로 사이클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 2010이 22일 11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날 제주도 177.7km 구간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대회는 23일 내륙으로 이동해 강진·보성을 거쳐 여수에 도착한다. 24일엔 여수를 출발해 순창·군산까지 질주한다. 이후 충주·춘천 등을 거쳐 내달 2일 서울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
 첫날 경기에서는 오전 8시30분 제주도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서 출발한 선수단이 해변 도로를 따라 섬 전체를 돌며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 경기 내내 내린 비 때문에 노면이 미끄러웠지만 선수들은 얇은 비옷을 걸치고 전력으로 도로를 달렸다.
 경기에서는 양임한(홍콩차이내셔널팀)이 4시간12분24초에 끝내해 노란색 저지(우승 선수가 입는 셔츠)의 주인공이 됐다. 같은 팀의 왕캄포가 4시간14분38초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조호성(36·서울시청)이 4시간14분38초에 구간을 주파해 3위에 올랐다. '경통 황제'로 불리던 조호성은 지난해 초 아마추어로 복귀했고 11월 투르 드 서울에서 우승한 바 있다.
 조호성을 필두로 한국 최고의 클라이머로 꼽히는 공효석(서울시청), 2007년 대회 우승자 박성백(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 사이클의 기동으로 성장한 장선재(26·EMG) 등이 우승에 도전한다.
 팀별로는 아시아랭킹 1위인 타브리즈 페트로케미컬팀(이란)·7위 브리짓스톤 앵커팀(일본) 등이 강팀으로 꼽힌다.
 한국의 서울시청·국민체육진흥공

단과 한국·러시아 혼합팀인 EMG팀도 '다크호스'다.
 이번 대회의 총 거리는 1672.2km에 달한다. 짧게는 54.3km(서울)부터 길게는 234.7km(영주-양양)를 하루에 달린다.
 여수-군산 구간(24일)에서는 준공영주-양양 구간(30일)에서는 해발 696m의 죽령재, 960m의 진고개 등을 넘어야 한다. 해발 1천13m의 구룡령을 올라야 하는 양양-춘천(5월1일) 구간은 '지옥의 레이스'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올림픽공원에서 순환코스 경주방식인 크리테리움으로 막을 내렸으나 올해는 올림픽대교, 서울시청, 청와대 앞길 등을 돌고 광화문으로 끝인한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엘리트 부문에 2억원, 스포셜 부문에 7000만원의 상금이 걸렸다. /연합뉴스